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전주 만든다

##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단계적 시행 차량 2부제·친환경차량 도입 확대 등 추진

전주시는 5일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단계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겨울철 중국의 난방 및 북서풍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내년부터는 발생 지역에 따라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배출원에 차이가 있는 만큼 수송과 발전·산업, 비산먼지 부문 등으로 배출원 특성별 대책을 마련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우려되는 시기에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도심 내 대형화물차와 노후 경유차량 등 공해차량의 운행제한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시행 여부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량 도입 확대, 노

후 경우차량 저공해화사업 추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등도 추진된다.

또 고효율폐기물 등을 원료로 하는 발전소와 시에서 운영하는 광역소각자원센터, 리사이클링타운 등을 포함한 산업단지 및 발전시설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배출업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장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다양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을 단속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도로 노면진공 청소차량을 점진적으로 증차하는 등 가로환경 청소방법도 개선기로 했다.

전주의 경우 도로 이동오염원이 43.63%, 비도로 이동오염원 36.7%, 제

조업 9%, 비산업 6.4%, 기타 4.3% 등으로 도로 이동오염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전주시에서 자체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전북대학교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기존 대책을 보완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전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새만금환경청, 익산시에서 공동으로 전북대학교 송미정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전북도 미세먼지 특성 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1차년도)'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지혜의 반찬에 따뜻한 손길 전주화웨이 협동조합은 5일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에 맞는 맞춤형 희망도시를 지원하는 전주시 '지혜의 반찬'에 성금 100만원을 후원했다.

## 도교육청, 현장실습 전수 실태점검 돌입

전북도교육청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전문계학과설치교) 등 총41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전수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5일 전북도교육청은 특성화고 등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참여 학교의 학생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이번 달 하순경까지 현장실습 전수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학교는 마이스터고 3개교, 특성화고 26개교,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 12개교 등 총41개 학교다.

구체적인 점검 방법은 해당 학교의 담임교사, 현장실습 담당 교사 등이 현장 실습에 참여한 모든 기업체를

직접 현장 방문해 현장실습생을 만나 상담하는 한편 근무환경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표준협약서 준수 여부(근로시간,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부당노동행위 등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침해 여부, 현장실습환경의 안전 위험요인 존재 여부와 응급조치체계 구축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 해당 학교는 현장 실습 실태 결과에 따라 담임 체크리스트를 자체 보관하고 특성화고 포털인 HIFIVE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이와함께 전라북도교육청은 41개 실태 점검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이상민 기자

## 전북대,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거점국립대 2위'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주관한 국가고객만족도(NSC) 조사에서 거점국립대 중 공동 2위를 차지했다.

국가고객만족도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130개 기업(대학)을 설문 방식으로 조사한 것을 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매긴 것이다.

이 조사에서 전북대는 77점을 받아 78점을 받은 충북대에 이어 공동 2위에 올랐다. 전북대는 8개의 주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060억 원을 확보, 학생 교육 투자 비율을 크게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635만 원으로 전

국 185개 대학 평균인 1,485만 원보다 월등히 높았고, 지역 거점국립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색깔 있는 모험인재 양성을 위해 최소 한 학기 이상 다른 나라나 본부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130개 기업(대학)을 설문 방식으로 조사한 것을 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매긴 것이다.

이 조사에서 전북대는 77점을 받아 78점을 받은 충북대에 이어 공동 2위에 올랐다. 전북대는 8개의 주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060억 원을 확보, 학생 교육 투자 비율을 크게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635만 원으로 전

## “역사 바꾸는 것은 정치혁명보다 교육혁명”

### 도올 김용옥, 전북대서 특강

철학자인 도올 김용옥 선생(사진)이 전북대를 찾아 '교육입국론'에 대한 특강을 하고 서거식 전 전북대 총장과 '교육 토크쇼'를 가졌다.

지난 4일 오후 5시 전북대 학술문화회관에서 열린 특강을 통해 도올은 “교사와 학생은 끊임없이 교감하고 서로를 형성해 가는 역동적인 생명관계다”면서 “정치혁명보다 교육



역에 관한 진보와 보수의 싸움은 공통된 체함을 기반으로 방법론적 견해 차이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혁명이 역사의 진로를 더 근원적으로 변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자녀 교육에 관한 진보와 보수의 싸움은 공

최근 교권이 무너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교권 재확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선생과 교과서는 학생이 배워야 하는 지식을 소유하고 선생이 오직 학생을 위한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고 시스템을 만드는 등 교권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교육에 있어 교사 권위가 확보되지 않으면 참다운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도올은 교사 자질에 대

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어진 토크쇼에서 서거식 전 전북대 총장은 “정치혁명보다 교육혁명이 역사의 진로를 더 근원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발언 등 많은 내용이 가슴에 와 닿는다”며 “전북은 너무 가난해 깨질 쪽박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전북교육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올은 “국가의 근본은 교육에 있다. 학교는 사회적 기관이며 공동체적 삶의 축소판이다”면서 “사회 진보와 개혁의 궁극적 방법이다”고 답했다.

/뉴스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입니다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운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

이 따뜻한 선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